

都市災害에 對한 對策方案

1. 提 言

單的으로 말해서 都市災害라고 할 수 있으나 廣義로는 우리들이 想像할 수 있는데까지 많은 것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公害」라는 稱号도 역시 災害의 一種인 것이며, 그것을 別途로 하여도 地震, 風水害, 火災, 爆発, 地盤沈下 등으로 多種多樣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火災의 問題에 焦點을 두고 말하고자 한다.

「災害에 對하여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問題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代價로서도 바꿀 수 없는 「人命」이 第一이고, 物質的인 「財貨」가 第二인 것으로 보는데는 異論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詳細히 生覺해 보면 그것도 明確하지 못한 것도 많다. 人命에는 貴賤老幼의 區別이 없는 것은 事實이다. 火災時의 避難對策에 對하여서도 그의 行動能力에 對應하여 老人이나 病弱者와 健康한 靑壯年과는 同一한 取扱을 하는 것은 不適當한 것이다. 그리고 物質的인 財貨에 對하여서는 그의 重要性을 어떻게 評價되느냐에 따라서 큰 差가 생기는 것이다. 全國民 또는 全人類에 있어서 貴重한 文化遺産인 國寶의 인 建築物이나 美術品類는 再生할 수 없다는 것을 內包하고있어 더욱 重要視되어야 할 것이며, 一般의 一般的인 建物이나 物品에 있어서도 個人的인 建物과 公共施設物中 어느것이 優先的으로 취급하여야 하느냐가 問題가 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는 災害의 加害要因을 「火災」에 限하여서는 그 對策을 生覺하는데 있어서 더욱 基本的인 것에 있고, 防災關係者에게는 單的으로 優秀한 工學的인 技術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人間的인 識見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2. 巨大化·複雜化 시키는 建物の 人命 危險對策

都市災害로서의 火災를 生覺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市街地의 大火」나 「地震時의 大規模火災」라는 것을 典型的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본다면 그 自體의 規模만은 큰 것이 事實이다. 都市에 特有한 建物이나 施設의 火災對策에 對하여 말 해보겠다.

都市에는, 人口의 集中에 있어서 그의 收容으로서의 住宅이 集中的으로 建設되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더 複雜化시키는 都市機能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諸般 施設(商工業, 運輸通信, 教育文化, 厚生等)이 集中한다. 그結果 個個의 建物이나 施設은 더욱더 巨大化되고 複合化되는 傾向을 보여준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世界的인 高密度인 것이다. 이로 因하여 狹小한 都市空間에 이러한 建築物이 틀이 없을 정도로 建設되어가고 있으므로해서 「高層建物」과 「地下街」의 火災로 因한 人命危險에 對한 對策으로서는 基本的으로

〈J〉은 加害要因으로 「有害개스를 包含한 煙氣」의 發生防止와 그 建物內의 流動伝走의 抑制와

〈L〉은 被害者인 것이다. 「建物內 在住者」의 迅速하고 安全한 處에 避難 이라는 두가지에 있겠지만 「高層빌딩」에서는 이 두가지와 그 經路가 垂直方向을 主로 하는데 對하여서 「地下街」「地下鉄」은 水平方向이 主가 된다는 것이 異質型이다. 또 하나의 重要한 相違點은 高層빌딩에서는 建物の 外部가 自由空間인데 比하여서는, 地下街와 地下鉄은 地面下에 있으며 周圍가 土砂로 埋塞되어 있다는 點으로, 이러한 點으로는 더욱이 救助對策의 面에 크게 影響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었던간에 人命安全對策의 原則은 前記 〈J〉, 〈L〉의 두方面에서 檢討하여, 建物內의 사람들이 煙氣(개스)로 인해서 危險하게 되지않으면서 「安全한 場所」까지 避難할 수 있는 것으로, 具體的 으로는 하나의 時間軸에 立却되어야 하며, 人間과 煙氣와의 動態를 明白히 하고, 建物內의 어떠한 構造와 位置와 發火된 原因에 의하여 要하는 避難者 全員은 그의 避難經路까지가 全長이 된다. 그 途中에 人間の 許容限度以上の 環境條件에 害를 입지 않을까 檢査할 수 있는 시스템을 考慮하며, 만약 주어진 建物이나 設備의 條件에 危險이 判定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부터 條件을 修正하여 一定한 安全

률이 確保될 때 까지 設計, 計劃을 練磨케 하는 方法을 採得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 中에서 火災時의 煙氣 動態에 따라서는 最近의 火災工學의 研究에 있어서 서울시市內에 새로 新設된 消防本部가 生긴 것은 오래 되지 않으나 앞으로의 進歩에 따라 逐次的으로 나타낼 수 있는 狀況에 있다고 보겠다. 恒時 必要한 範圍의 精度로 明確한 것이 可能케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또하나의 人間의 動態에 있어서는 煙氣와 같은 物理的現象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簡單하게끔 實驗과 理論에 대하여 明確히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이 方面의 研究가 가장 深刻한 것이라고 보겠다. 즉 말하자면 避難時의 群集되지 않고 心理的條件으로 보는점을 至今까지는 그의 判例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人間의 行動에 關한 研究가 進前됨에 따라 前記의 시스템 全體의 精度(信賴度)를 上昇할 수 없는 것으로 今後부터는 이 方面에 對한 研究의 進展이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해서 『人間의 尺度』(human scale)라고 불려지는 問題가 重要한 하나의 條件이 된다는 것을 더욱 指摘해 두고 싶은 것이다. 人間의 重要한 要因으로서 關係하지 않은 시스템, 즉 말하자면 地震力이나 風力이라던지 力學上의 外力이 建築物에 加해진 힘의 作用에 關한 시스템 으로서는 各 要因間의 因果關係를 表示되는 法則이 明白해지면 外力의 增加에 對應하여 歪曲된 것 이라도 一定한 限度以內에 押縮된 構造體의 材料나 그의 断面寸數法이 算出케 되는 것으로 理論的으로는 外力이 增大하여도 對策이 可能하다고 본다. 技術的으로는 高強度 材料의 開發이나 施工技術의 進歩에 따라 더욱 高層이나 深層의 建物 또는 規模의 큰 構造物의 建設이 可能케 된다. 그리고 工學關係의 技術者는 從來 이와같은 巨大化의 要請에 答辯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서는 技術의 開發에 努力을 持續해 온 것이 오늘 的 實狀이다. 그러나 人間의 主要한 要因으로서 關係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物理的인 解明으로서 는 解決되지 않을 것임으로, 이것을 單的으로 「安全率」이라고 하는 工學的인 常套手段으로 止버릴 것과 最惡의 경우에서는 「大量의 人命損失」이라는 形의 危險을 犯할 수 있는 것이다. 火災發生과 같은 非常事態에 人間의 行動에 影響을 부여하는 여

러가지 要因, 더욱이 心理的인 要因에 있어서는 前記와 같이 未開明의 點이 많은 現狀이나, 中의 하나로서 人間이 一個의 生物로서 周辺空間의 認知에 「人間의 尺度」라고 보는 것으로써 測定 되는 一定의 限界가 있는 것으로 生覺이 되는 것이다. 一例를 들어보면, 火災時의 煙氣가 좁은 房이나 濁한 室內라 할지라도 非常出口까지에 距離가 같은 것이나마 넓은 室內과 좁은 室內와는 避難者의 心理狀態는 같을 수가 없다. 人間的인 尺度에서본 一定한 限界를 넘은 넓은 室內에서는 不安感에서 有効한 避難行動에 옮겨질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以上과 같은 것을 考慮한다면, 사람의 行動에 對한 信賴度의 높은 法則性이 解明되는 規模의 巨大化를 推進하는 것은 危險하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現狀으로 高層빌딩이나 地下街에서 一定한 規模의 上限界를 設定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보겠다.

3. 大規模災害의 典型으로서의 地震 火災 對策

主로 火災를 生覺할 때 大規模의인 都市災害의 典型으로서는, 從來는 「強風下에 있어서 市街地의 大火」가 先見問題로 나타 난다. 5.16以後에, 建物 不燃化率의 增加와 都市消防力의 增強에 依하여 이러한 災害가 적어졌던 現在로서 「地震時의 同時 發火와 天災에서 오는 多發의인 火災는 더욱 큰 大火」로 危險한 災害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겠으나 地震이나 地震을 除外하고서는 모두 外國에서 일어나는 災害는 共通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強한 天災는 역시 連續的으로 일어나는 地災, 海災, 地上, 地下까지 災害를 갖어다주는 것으로 그 連結性이 마침내 各種의 危險物의 爆發, 劇藥, 毒物에 의한 汚染等 多種多樣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火災를 中心으로 論하기로 하겠다.

大規模의인 都市災害중에서도 地震이 一級的인 要因으로 되는 災害의 特徵은 무엇이라고 해도 그것은 突發性, 予告를 하지 않는다는點 여기에서 地震의 發生予知의 研究를 日本에서는 크게 研究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研究 對象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 天災는 日本에서

만 제한 것으로 算出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 하면 從前까지 想象조차 못하던 油田이 우리나라에서도 地質異變을 갖어 와서, 地下油通路가 地表上으로 上昇케되는 것이 우리나라 地域으로 昇高되어 蔚山の 油性土質과 같이 또는 海底油田 開採이라는 것으로 봐서 우리들의 周圍에서는 地震은 日本의 特号가 아니라 우리의 都市에도 突發的 天災를 充分히 考慮해야만 될 것이다. 이로서 地震뿐만 아니라 地下街와 地下鉄에 依한 力學的 強度를 갖는 建造物로서는 都市内の 全施設이 構成되는 것을 目標로 한 長期的 都市改造計劃과 同時에 그와같이 併行하여 明日이라도 發生할지 모르는 天災에 對應하여 應急對策을 時急히 整備 하여두는 것도 必要하다고 보겠다.

이것은 地震에만 限한 것이 아니라 災害도 같은 것이다. 즉 말하자면 颱風의 強弱은 數時間 前에 그 襲來를 予知할 수 있는 것이다. 故로 人命을 守護하기 위한 避難을 實施할 수 있는데 비해 地震과 같은 것은 時間的 余裕가 없는 點이 條件的으로 底下級에서 苦亂을 갖어다 준다.

兩方間の 對策에서는 前者의 耐震耐火構造 建物에 의한 都市改造計劃에 있어서도 工學 技術的인 分野로서는 밝혀질 것이며 未解決의 分野는 社會經濟的인 分野, 즉 土地取得이나 建設費 등에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後者の 應急對策에 對하여서는 明確한 方法이 打決되지 못하고 있는 現狀이다.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은 建物の 倒壞라는 直接的 被害와 그에 따라 생기는 同時多發性的인 火災, 大量의 人命危險이 予想되는 前記의 火災를 考慮할 것이다. 그 火災에는 出火點의 數와 그 位置가 問題가 되나 그 予測方法에는 아직 精度의 充分한 假定條件이 많이 있는 것이다. 火災가 發生했을 때 直後에 飛行하는 헬리콥터보담 出火點의 位置를 確認되는 것이 細細히 無線으로 그 情報를 「都市防災 센터(假稱)」에 送信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와 같은 情報를 受信되는 同時에 센터에서는 準備되어있는 市内各部分(500m 網方式等)의 市街地의 條件(平均建蔽率, 建物構造, 同規模層數)와 그 當時의 氣象條件(風向과 風速)을 알아야 하며 出火點에서의 增加, 風向·風速의 變化等の 條件에의 變動에 對하여 對應하는 延燒區域의 予測이 可能하게 알아야만 된다. 다음에는 延燒區域의 予測

이 되면 對應策으로 各區域의 住民들을 더욱 安全하고 有効的인 經路를 通하여 最終的인 避難地까지 誘導하는 方法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避難群集을 誘導하는데 全力을 다 해야만 된다. 만약 避難經路의 途中에 火災로서 避難上 支障이 생길 것이 予測되면 그地點에 對하여 消防力을 投入하는 對應策이 必要로 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再開採과 都市防災

防災라는 면에서 再開採의 問題를 生覺할 때 再開採이 防災計劃을 實現하기 爲하여서는 즉, 安全한 都市를 만들기위하여 有力한 武器가 되느냐가 問題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再開採에 의한 都市改造는, 本來는 安全한 都市를 만들기위한 手段이다. 그러므로 再開採과 防災는 같이 比較하여 論하기가 어려워진다. 再開採은, 어디까지나 都市를 安全化하는 防災計劃內에서 明確한 位置를 갖는 再開採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至今까지 行해온 再開採은 참으로 防災計劃의 部署를 맡아왔느냐가 問題이다.

現在의 再開採로서는 防災에 對한 安全을 確保하기 爲하여 責任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事實이라고 본다. 都市를 安全化하기 爲하여 「武器」 또는 「道具」로서는 現在의 再開採에는 너무나 貧弱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都市安全의 武器라고 한다면 그 自体가 強力한 武器, 즉 말하자면 安全한 것이어야만 될 것이며, 同時에 武器로서 都市全体속에서 어떻게 使用되어 가는가 하는 位置를 갖이지 않고서는 말이 안될 것이다.

防災, 그것은 都市를 安全化시켜 나간다는 것은 都市에 있어서 크나큰 方針인 것이다. 우리들의 生活에 따르는 큰 規範이려야 한다. 그리고, 再開採을 始作하려는 都市에서는 여러가지의 事業이나 計劃은 災害에 對備하려는 우리들의 意識을 實體

化하는 道具라야만 한다. 이로 因하여 防災라는 것을 짊어지는 바 그 再開發은 單純한 物理的인 施設을 갖추는데서 一步前進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있어서 그 무엇을 實体化하려고 하는 것이 問題인 것이다.

그러하나 現在의 우리들에 依한 再開發의 手法으로 明確하게 打開된다는 方針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困難하다. 즉 防災에 對한 方針으로서 打開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참으로 防災의인 實体化로서 된다고 하기에 困難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으로 具體的인 事例로서 防災의 問題와 再開發의 問題가 부닥쳐진다. 이러한 意味에서 再開發이 防災問題를 避할 수 없게된 狀況에 있는 都市集中인 地域과 地方的 分散開發 問題를 生覺할 수 있다.

首都地域再開發은 水災 및 大火災의 危險성이 가장 큰 地帶에 大規模의인 再開發에 依하여 避難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現在의 高性能路에 “터널”과 大規模的인 敷地の 周圍에 高層住宅을 建立하며 그곳에는 避難廣場을 爲하여 綠地帶을 만들고 그곳에 學校, 病院, 防災센터를 包含한 建設을 하려고 하는 것이 市街地의 廣場이 “오아시스”로서 平常時에도 그곳이 避難廣場으로 有効하게 使用되게 計劃되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天災에의 對備로서 明確한 方針이다. 그리고 防災方針을 具體化하기 위하여서는 再開發로서 高層住宅을 建立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構想은 目標의 對策이며 建設方針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크나 큰 天災나 火災속에서 끊임 없이 大規模의인 防災로서 都市生活에 必要한 여러가지 施設을 建設하며, 機能化되게 効用성이 必要하며 참으로의 都市機能의 再開發이 아직 問題點을 남겨주고 있다.

實際로 防災指針으로서 여러가지의 正当性을 갖는다.

過度密集都市區域에 있어서 天災인 地震이나 地下街에 對한 對策이란?

低濕, 軟弱地盤에 人口 또는 木造家屋의 密集에서 오는 將來的展望은?

計劃과 指針이 되었다하나 그것이 周圍에 避難路의 安全性은?

地震과 地下街에 對한 高層住宅의 安全性은? 避難場所로서의 機能은?

이와같이 大天災로서의 解決해야할 問題는 無數히 많다고 보겠다.

서울뿐만 아니라 都市로서 再開發은 여러가지 問題를 應受케 됨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防災→都市集團→指針構想→高層住宅+避難地 라는 圖式을 簡單하게 處理하여 高層住宅을 建立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高層住宅을 建立한다고 해도 對天災와 地下街 및 地下鉄의 震動이 어떻게 끼쳐지나 檢討하면 至今까지의 住宅建設과는 相當히 異質的인 것이 되는 것이다. 避難地에 爲한 高層住宅은 여러가지의 問題點은 耐質, 耐災라야만 한다. 이로서 天災에도 災害를 갖어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建物の 基礎, 構造의 面에서 처음부터 “에레베이터” 階段, 窓門과 열쇠, “베란다”, 基柱(Piloti) 등 그 어느것이든간에 震動에 配慮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이 生覺하면 天災와 震動에 依한 本質的인 것으로 얼마나 困難한點에 부딪치게 되는 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都市再開發이란 對策으로 防災라는 限界에서 만이라도 그 防災의 目標로서는 再開發에 있어서의 安全性의 問題인 것이다. 그렇다고 安全性에만 問題로 삼을 것이 아니라 至今까지 再開發事業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의 方法과 技術的인 問題로 어떻게 造成케 해야 하느냐의 單純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너무나 큰 問題가 發生케 되는 것이다.

正確히 말하자면 至今까지의 再開發은 建設事業이었고 어떠한 對策機構를 만드는 目標였다. 再開發을 推進하기 위하여 各種의 調査, 研究에 對하여서도 事業化의 正当性을 證明하는 것이 重要하다. 安全性의 檢討라던가 生活再建의 檢討라는 것은 地域의 生活 그 自體의 本來的 再開發에 關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防災對策의 指針에 對한 安全性의 檢討는 指針

그 自体에 있는 것을 明記하지 않으면 안된다. 再開發의 企劃, 計劃, 設計, 實施의 各段階는 原來 再開發事業이 끝난 후에 또 하나의 生活空間 으로서 應用된 뒤에서도 繼續的인 安全性的 檢討가 行하여야할 必要가 있고, 安全性을 어느 정도의 段階로 証明하고 그것에 의하여 事業이 完成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都市에는 이와같은 形型으로 安全問題를 檢討하기 위한 機構는 存在하지 못했다. 至今까지 物理的인 施設을 具備하고 그리고 그것은 單的인 施設을 個別的으로 具備하는데 第一目標로 하여 왔기에 귀찮은일로, 번거롭게된 問題로서 저버리는 傾向이 많았다. 現實問題로서 오늘의 社會情勢아래에서는 採算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느껴 번거롭고 귀찮은 實態이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問題를 남겨둔 채 拍車를 加해온 것이 오늘의 狀況일 것이다.

그러나 都市再開發에 있어서 저버릴 수 없는 都市의 防災의再開發에 있어서는 天災對策이라는 問題는 事業化라는 觀點에서 보면, 自体的 목적임을 當하는 問題設定이나 그것을 踏越하여 만들어진다는 意味를 언제나 連續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 必要性이 있다.

指針構想은 그의 出發點에서 天災에 對한 安全性이 問題이다. 都市大火의 問題, 地盤의 問題, 避難의 問題, 風의 問題, 建物の 問題等으로 各種의 異質의 그리고 常時的으로 問題를 解決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至今부터의 問題에 있어서는 現在의 學門體系로서는 充分히 解明되지 못하는 것이 많다. 防災라는 總合科學의 方法을 構築하면서 進行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우리들의 進行前途에는 많은 困難의 作業이 놓여져 있다.

이와같이 防災라는 것을 旗印하면 再開發은 豈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서는 안될 것이다. 순수한 意味에서의 再開發을 可能케 되는 실마리는 이러한데서 부터 存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物理的인 施設을 만드는 것으로만 再開發을 完結된다고 본다면 아마도 防災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都市再開發이란 指針構想에 있어서는 이러한 重任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防災問題의 解決을 하기엔 앞으로의 두고 두고할 크나큰 課題인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보면 都市開發은 單的으로 都市라는 特定的인 곳만이 있을 수 있는 特殊한 再開發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至今까지 우리들의 再開發이라는 것을 고치고 都市의 安全性을 再次 느껴야 할 時期가 왔음을 더욱 우리에게는 貴重한 位置에 놓여져 있다. 再開發이 防災의인데서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은 주어진 試金石인 것이다.

이와 같이 防災라는 것은 이로 人間의 安全이라는 것을 正面으로 맞서게 되며 實體面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普通的인 住宅建設과 별다름이 없다고 본다면 今後의 再開發이 防災의인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成果는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今後의 都市再開發事業이 都市의 再開發에 의하여 有益한 道具가 되기에는 都市再開發에 있어서 무엇인지 『눈앞에 그 實物的인 것을 보여 주오』하는 좋은 意味에서 나타 내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天災나 火災에 꼭 必要로 한 裝備로서의 都市空間이며, 將來의 生活에 繁營을 주는 都市空間인가』하면 納得이 갈수 있는 空間과 生活의 자리값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안된다.

都市再開發이 여러가지 意味에서도 至今의 都市再開發에 어떠한 것파도 知惠와 資金과 時間으로 파고들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決斷코 오늘 날에 側面的인데서 可能性만을 追求한 것이다. 이로서 都市再開發 安全問題의 檢討와 事業化의 檢討를 並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至今까지의 再開發에서는 볼 수 없는 정도로 가장 좋은 計劃(Project)이다. 그러나 冷情한 말로서 한다면 今의 都市는 安全問題의 檢討가 進治되어 갈 수록 더욱 事業化의 手足이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로서 至今까지의 都市에서는 그 얼마나 安全에 對하여 投資가 적었든가를 生覺해보면 알 수 있다. 하여튼 어떠한 일로 손이 不足하였다 하더라도 安全問題는 決코 저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 問題를 所重히 함으로서 都市安全化를 위하여 새롭게 出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都市安全化를 위해서는 至今까지의 都市近代化를 만들어온 兪想과는 다른 새로운 兪想과 그것을 實体化하기 위한 힘——더욱 端的으로 말하면 法律과 資金——그것이 必要한 것이다. 여기에서 부터 決코 머리속에서 操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都市再開兪이라는 具體적인 事例속에서 狀體的인 提示로서 나오지 않고서는 새로운 國家近代化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以上과 같이 防災와 再開兪이란 問題에 있어서 어느 程度 具體化 될 수 있는 都市再開兪이란 事例에 對하여 檢討해 왔으나, 問題가 事業이라는 具體적인 側面에 接近할 수록 再開兪속의 防災問題를 實體的으로 提取되기에 苦難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現在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防災에 對한 財產이 적은 때문이라 하겠다.

現在는 아직 再開兪와 防災라는 問題에 對하여 一般論을 展開할 수 있는 段階는 못되나, 都市再開兪을 研究와 經驗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결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再開兪의 自体뿐만 아니라 他的 計劃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今後 防災問題를 追求하여 나가는 데는 必要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서도 異質性에 對한 論理를 構築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이다.

防災라는 것은 異質性的 論理에서 부터 出兪인 것이다. 平常時的 論理가 털어져버리거나 避해간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想起 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現在의 韓國都市는 平常時的 論理를 그대로 實体化했던 것으로 본다. 動亂後의 韓國은 그 무엇을 바라고 왔느냐?, 어데까지나 빈 자리도 없이 平常時的 論理의 追求였지 이러한 過程속에서 찾아 볼려고 하지 않고 平常時의 人間으로서 적당한 空間을 보여주고 만 것이다. 人間の 安全이 저버려지는 異質性的 問題는 참으로의 意味에서 強調되어야 한다. 再開兪뿐만 아니라, 道路, 住宅, 工場, 地下街等 여러가지 計劃이나 事業은 平常時의 人間에게 適合한 過程에 알맞게 또는 最大의 目標로 되어왔다고 봐도 좋겠다.

勿論, 平常時에 機能의 充實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追求해야 할 重要한 課題인 것이다. 하여튼 平

常時的 機能의 充實이라는 것도 異質性的 問題를 버리고서 生覺할 수 없다. 平常時的 論理로서만 構築하였든것은 災害現象에 있어서는 返受化되기 에 알맞다. 現在 都市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問題——公害, 交通事故, 大地震時와 水害等은 모두 우리들이 異質性的 論理를 저버리고 그냥 都市를 構成하여온 일에 對한 災害現象에서 返受되고 마는 것이다.

安全을 確保하여 防災라는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異質性的 論理를 都市의 主軸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異質性的 論理는 平常時的 論理의 악세사리(Accesory)가 아니며, 平常時的 論理로서 만들어진 各種 施設의 高品價値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異質性的 論理를 利用해서는 안된다.

異質性에 對한 配慮는 우리들의 平常時的 接合性을 充滿케 하기 위하여서 아무렇게나 $+ \cdot \alpha$ 여서는 안될 것이다. 平常時的 人間도 接合性에 對한 配慮로서 더욱 異質性的 問題를 分別할 수 있는 것으로 프라스·알파($+$, α)가 되어 서야만 한다.

그렇다고 現實에는 異質性的 論理를 都市의 主軸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困難한 것이다. 그 理由는 무엇보다도 異質性的 論理自体가 論理로서 全然코 貧弱한 것이며, 아마도 그 結果로서 論理를 實体化하는 하나의 힘. ——制度·資金의 問題는 本來부터 社會意識의 面에서도——무엇인가 아마도 없다는 것이 正答일 것이다.

平常時的 各種의 問題에 對하여서는 學問, 技術의 分野를 처음으로 하여 社會의 여러가지 分野가 눈 부신 發展을 持續해 왔다. 異質性的 問題에 對하여서는 前進를 못갖어 왔다. 우리들은 奇襲해 오는 災害를 生覺해 보면 그 規模가 커질수록 크 나 큰 問題를 갖어다 준다.

그런 후 어떠한 模樣으로 人間에게 危害를 주는 나에 對하여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正確히 말하여 都市化의 異質性的 問題에 對하여서 “눈 감고 야옹.”하는 것으로 可能케 되었든 것이다.

이러한 分野에는 知惠와 資金을 全然使用코저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再開發도 그 例外는 아니다. 至今까지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再開發은 前例와 같이 平常時의 論理로서 進歩의인 動機를 極服해야만 되는 時期로서 現在의 段階로서 防災와 再開發이 兩立되어 있는 것을 安易하게 生覺해오든 것을 國家事業으로 傳環되어 가는 것이다. 더욱이 災害의 “포텐셜”이 極端으로 높아진 既成市街地에 있어서 今後의 再開發은 必然的으로 大規模의인, 高層 高密化되어 가는 것으로 봐 防災라는 말을 그렇게 簡單한 것으로 使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今日起어서 必要한 것은 再開發이라는 言語가 갖이고 있는 意味性과 防災라는 言語가 갖이고 있는 참뜻을 깊이 生覺해야 할 것이다.

國家大業으로서 近代化精神과 都市再開發로서 都市의 中心部나 外部에도 地下街와 地下鐵이며 交通

路와 便利道로서 再開發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安全度를 찾아 갈려면 어느 때고 그 安全한 것은 完全하지 못한 것이다. 安全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 부터 하나 하나씩 一步, 二步로 前進해나가는 것 외는 安全에 接近되는 것으로서는 不足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 하나의 具體的인 再開發의 立場에서 異質性의 論理를 하나씩 構築하며, 이에 따라 平常時의 論理를 打破해 가는데 있어서 처음으로 可能케 되는 것이다.

再開發의 安全이란 이름으로 우리들은 國家의事業에서 地域別로, 地方自治制로, 平常時의 論理를 打破하고 있는 이때 集團都市 群立建築에도 安全의 柱鏹을 새워 都市의 「마음기둥」을 새로히 計劃함으로서 都市의 防災의再開發이 評價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

(日本建築協會 機關誌「建築과 社會」1972年 10月号에서 발해 초역한것임. 嚴 聖寬·譯)